

치솟는 환율·가계부채… 한은, 금리 ‘인하-동결’ 딜레마

원·달러 환율 16년 만에 고점
‘원화 약세’ 물가 자극 등 우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줄었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커져
한은, 기준금리 완화 속도 조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기준금리보다 환율과 가계부채에 쏠리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환율 상승)에서 달러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규제 강화 속 2금융권으로 번지는 대출 흐름이 겹쳐 한은의 완화 속도를 묶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달러로 유지한 채 만기일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를 현물환 시장에서 아나인 스와프를 통해 일부 분산·완충해 환율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해외투자를 집행한 뒤 만기에 다시 맞교환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해야 하는 압력을 줄여, 달러 수급이 타이트해질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고점(원화 약세) 부근까지 치솟은 바 있어 정책당국이 달러 수급 관리 카드를 장기화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경로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해 외환스와프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악한 원화’가 정책 판단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

회 위원 역시 최근 원화 약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구매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가 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경기만 보고 ‘완화 속도’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한은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에 부합하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더 신중해질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쪽 또 다른 ‘제약’은 가계부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는데, 은행권 증가폭은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돼 업권 간 이동(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업권별로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상호금융·보험·여전사 등에서 증가폭이 커졌다. 대출 규제·심사 강화가 ‘총량 억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도 읽힌다. 금리를 낮추는 순간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비은행권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충돌은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환율·가계부채 여건은 한은이 ‘동결-완화’ 사이 간격을 쉽게 넓히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은 1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다고 밝혔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은은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제약을 동시에 넘겨야 한다. 다음 기준금리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내릴지”보다 환율과 대출 흐름이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감당할 만큼 진정됐는지에 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연임성공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새로 선출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연임은 불가하다.

한편, 이번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시행됐다. 투표 및 개표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1000원 스키보험… 독감 걸려도 치료비 드려요”

손보사 ‘계절형 미니보험’

롯데, 겨울시즌 ‘CREW 스키보험’
24시간 보장 1회권, 시즌권 나눠 운영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
한랭질환 등 ‘계절별 패키지’ 제공

‘계절형 미니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신성장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루 1000원짜리 서핑보험과 24시간 보장 스키보험, 계절별 감기·한랭질환까지 챙긴 4계절보험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액·단기 상품이 앱 기반 디지털 채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계절·상황별로 위험을 세분화한 미니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 여름 여름철 대표 레저인 서핑을 위한 전용 상품 ‘let’s safe 서핑보험’을 선보인 데 이어, 겨울 시즌을 맞아 ‘CREW 스키보험’을 리뉴얼하며 계절형 미니보험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서핑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판



롯데손해보험 스키보험 이미지. /롯데손해보험

매된다.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누구나 하루 1000원(1회당)으로 서핑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서핑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골절로 인한 김치 치료시 10만원, 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표자 1명 가입으로 동반 최대 10인까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함께 가입’ 플랜도 마련했다.

‘CREW 스키보험’은 한층 세분화된 플랜으로 돌아왔다. 스키장 방문 패턴



삼성화재 4계절보험 겨울플랜 이미지. /삼성화재

에 맞춰 24시간을 보장하는 ‘1회권’ 플랜과 스키장 폐장 시점까지를 한 번에 보장하는 ‘시즌권’ 플랜을 나눠 운영한다. 하루만 스키장을 찾는 고객은 1회권 플랜을 선택해 1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시즌권 플랜은 약 1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오는 2026년 3월 폐장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비 20만원, 골절 수술비 20만원, 김치 치료비 10만원에 스키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300만원 등으로 설계됐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 계절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한 중심의 계절형 미니보험도 등장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월 다이렉트 전용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묶어 한 계절에 한 번만 가입하면 해당 계절 종료 시까지 보장이 이어진다. 겨울플랜은 겨울철 특화 담보를 강화해 지난 12월 1일부터 가을플랜 종료 후 자동 전환했다.

겨울플랜은 본격적인 한파와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비, 겨울철 특정 감염성 질환 진단비, 호흡기계 다빈도질환 입원일당·수술비 등을 주요 담보로 내세웠다. 날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 리스크를 ‘계절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 변화에 따라 주요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4계절보험에서는 고객에게 계절별 맞춤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파와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겨울플랜을 통해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역삼센트럴자이

이틀간 2만여 명 몰려

1순위 경쟁률 487대 1

1만 명 넘게 신청한 특별공급에 이어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이틀간 청약통장 3만개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10억 로또’를 노리는 현금 부자 수요가 커지며 1순위 경쟁률은 400대 1을 훌쩍 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를 모집한 결과 2만143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87.1대 1을 기록했다. 전란 특별공급에는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해 2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이 1692.3대 1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전용 84㎡A(467.5대 1), 84㎡D(154.0대 1), 84㎡C(141.0대 1), 84㎡B(115.5대 1), 122㎡(109.6대 1) 순으로 높았다.

청약이 대거 몰린 배경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현금 부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8067만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 59㎡ 20억 1200만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원, 122㎡ 37억 9800만원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해보면 구축 아파트 개나리레미안은 전용 84㎡가 35억원에, 역삼푸르지오 전용 59㎡는 29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역삼센트럴자이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원 수준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치열한 청약 경쟁률은 현금 부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삼센트럴자이가 지어지는 강남구는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도 10년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보증 기반 중소·벤처 금융지원

신보·기보와 ‘생산적 금융 강화’ 맞손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기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술·수출·창업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및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 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신규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한은행은 업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증 연계 대출을 제공해 실물경제 기반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